



www.ibita.or.kr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2016년 홍콩 코스모프로프

제 2016-11호

## KOREA-IBITA관 정부지원 “2016년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추경선정 확정. 화장품관/헤어관/에스테틱관/네일관/이멀징관등 43개사 추경 최대50% KOREA-IBITA 한국관 정부지원 혜택 받아.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이사장 윤주택)는 2016년도 추경으로 정부지원 해외전시 사업에 IBITA가 주관 진행하는 2016년 홍콩코스모프로프 박람회가 선정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기존 KOREA-IBITA관에 참가해 오던 40여개 참가기업은 KOTRA의 지원 혜택(임차, 장치, 물류비 지원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바이어 수출상담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큰 활력을 받게 되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는 앞으로도 해외전시회를 통한 국내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참가기업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는 2017년 32개 해외유망박람회를 선정하여 정부지원 또는 단체관으로 주관 진행하여 참가사를 모집중에 있다. 또한 IBITA산하 법인인 “한국뷰티산업무역원”에서는 전시 참가사들을 위한 무역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업계로 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 북미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미용박람회

## 2017년~2019년 3년간 “북미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미용박람회 ” 정부지원 해외 유망박람회 선정 확정,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한국 국가관 모집 진행중.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는 2017년~2019년 3년간 “북미 코스모프로프 화장품, 미용박람회” (2017년 7월9~11일) 정부지원 해외 유망박람회로 선정 확정되어 한국 국가관 참가사 모집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관 참가사를 지원할 수 있어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되었다.

세계 3대 화장품 미용 전시회인 ‘북미 코스모프로프 박람회’는 수출입 상담 위주의 미용관련 B2B(기업 간 거래) 종합 전시이다. 올해엔 946개 제조 및 수출입업체가 참가했으며 IBITA에서 진행한 한국 국가관으로 50여개사가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7년 한국 국가관은 기존 재 참가사를 포함하여 70여개사로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관 참가사는 “2016북미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며 “부스에 방문한 상당수 바이어들과 우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 앞으로 미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NTENTS

01 IBITA 헤드라인	05 IBITA ISSUE	09 국내외 시장정보
02 IBITA Top News	06 IBITA Top News	10 유관기관 소식
03 IBITA Top News	07 IBITA Top News	11 17년 해외유망박람회 모집안내
04 IBITA ISSUE	08 IBITA Top News	12 2017년도 해외박람회

# 2017년도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KOREA-IBITA 단체관 순항 50주년기념 “코스모프라임(COSMOPRIME) 역대 최대 이벤트”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50여개사 규모 한국단체관 주관진행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2017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17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7)에 60여 개사 규모의 한국단체관(KOREA-IBITA) 운영을 위하여 KOREA-IBITA 한국단체관 모집진행중이다.(02-861-8087)

2017년으로 50회째를 맞는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뷰티산업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박람회로 유럽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뷰티 박람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참관객 증가에 힘입어 총 25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역대 최다 참관객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 2012년 국내 최초로 실내 (30홀 국제관)에 한국 단체관(KOREA-IBITA)을 주관한 이래 매년 규모를 확장하여 참가 5년째인 올 해 총 5개의 섹터 (30홀 국제관, 19홀 프레미엄관, 프로페셔널 애스테틱 전용관 14홀, 18홀 코스모파크)에 협회 한국 단체관이 구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단체관(KOREA-IBITA관)이 구성되었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바이어가 협회 IBITA관을 방문하여 K-Beauty를 선도하는 우수한 한국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

특히, 해외 바이어에게 인기 있는 30홀은 국가관 전용 홀로서 40여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동 홀에는 10여년 넘게 동일 위치로 참가해온 영국관, 미국관을 비롯하여 루마니아관, 불가리아관, 터키관, 파키스탄관, 그리스관, 스페인관, 폴란드관, 프랑스관, 호주, 이스라엘, 페루, 태국, 네덜란드, 중국, 대만 등 총 35개국이 참가 하였다. 또한 국제관 30홀 뿐 아니라 14홀(애스테틱, 스파 섹터)에 를 비롯하여 19홀 프레미엄존, 18홀(화장품 용기 및 부자재 섹터)에도 협회 KOREA-IBITA 관이 구성되었다.



2016년도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IBITA 단체관 전경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00조원의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전시 주최측에서는 올해 최초로 할랄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할랄인증제품만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회에서도 최초로 구성된 할랄관에 참여하여 약 16개사의 해외기업과 함께 무슬림인들의 관심으로 한국 할랄제품이 주목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30홀 국제관에는 강원도와 전라도의 바이오활성소재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전라 지역공동관이 협회 단체관 내에 별도로 구성되어 참가들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뷰티 산업의 상징성을 지닌 박람회이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참가기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문 바이어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참가 기업 중 2017년도 재참가 신청율이 95%에 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재참가율이 높은 박람회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최고 전시회”라고 했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세계 뷰티 브랜드, 이란 시장에 선점 위한 치열한 전쟁 2017년 한국관 30여개기업 참가사 지원모집에 들어가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 최초 한국관 구성 -

이란은 핵 문제 협상 이후 규제 완화로 중동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이란 시장개척에 대한 전 세계적인 뷰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2016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Iran Beauty & Clean 2016)에 최초로 한국단체관(KOREA-IBITA)을 구성하여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는 이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뷰티 전문 박람회로 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 각국이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을 비롯하여 이태리관, 터키관, 인도관, 프랑스관, 네덜란드관, 유럽관이 구성되었다. 총 10개의 훌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관은 총 14개사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박람회 참가를 마쳤다.



2016년도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 협회 한국단체관 전경

이란은 엄격한 복장 규정이 존재하지만 화장품 판매는 중동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 1위 수입화장품 소비국으로, 매년 15억 유로가 넘는 엄청난 양의 화장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미국/유럽 화장품을 대체할 좋은 품질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 앞으로 한국 화장품의 이란 진출에 대한 잠재성이 무궁무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란에서는 최근 외국 영화, 드라마의 영향으로 메이크업, 헤어, 향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장금, 주몽 등의 한국드라마 시청률이 80% 이상을 기록하며 한류열풍이 뜨거워 이에 따른 한국 뷰티제품이 활황을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잡한 기업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임대시장의 엄격한 규제와 높은 가격이 이란 시장의 또 다른 잠재적 장애물로, 이 때문에 다수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체인점 운영(프랜차이즈)을 선택하게 된다. 이란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시장 진출이 쉽지 만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수익성이 매우 좋아 많은 기업들이 이란 화장품 시장에 초점을 두고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윤주택 이사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7위인 이란 시장에, 이제는 K 뷰티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이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이란에 K 뷰티를 알리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한국 뷰티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한 박람회에 한국관을 점차 확대 구성하여 현지 시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며 앞으로도 이란 및 중동시장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5

2016년도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 협회 한국단체관 전경

**IBITA ISSUE**

# '2017년 두바이 더마(Dubai Derma2017)피부미용 전문박람회 한국단독파트너 IBITA “코리아 더마” 박람회도 함께 추진중

- 에스테틱 피부미용관련 기업 중동 진출의 돌파구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 -

글로벌 에스테틱 피부미용 Dermatology 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 눈에 조망하고 세계적인 전시 및 컨퍼런스 주최사 'Index Holding'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내실을 겸비한 B2B 전시회 & 세계 굴지의 병원 의사들이 참가하는 학술 대회에 모든 언론 초미의 관심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윤주택 이사장은 두바이 더마 전시회 주최사인 인덱스 홀딩 Index Holding 그룹 회장 (Abdulsalam Almadani) 과 인덱스 홀딩 본사 회의실에서 2017년 두바이 더마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본 방향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타리크 알 마다디 한국지사대표와도 5월 9일 실무회 의와 본격적인 2017년 두바이 더마에 한국관 참가사의 지원 방향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덱스홀딩이 주최하는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Dubai Derm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이자 유일의 피부과, 레이저 치료 관련 컨퍼런스와 전시회이다. 1991년 최초로 개최되어 매년 성장을 거듭해오며 올해 2016년 16회째를 맞이한 두바이 더마 Dubai Derma 는, 스킨 및 헤어 케어, 레이저 치료기기 등의 최신 피부미용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유럽을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하여 피부치료부터 안티에이징, 피부재생기술, 레이저 치료기술까지 피부미용 및 치료에 관한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 8천여명이 넘는 피부과 의사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피부미용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B2B 전시회 겸 학술 컨퍼런스 성격을 지녔으며 매년 재참가율이 90%를 육박하는 유망 전시회이기도 하다.



가장 우측 인덱스홀딩 회장 Dr. Abdul Salam Al Madani,  
우측으로부터 두 번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



좌측 인덱스홀딩 한국지사대표 Tariq Al Madani 타리크 알 마다니,  
우측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이사장 윤주택

무엇보다 '두바이 더마 박람회'는 일반 화장품 · 뷰티 전시회와 달리 피부미용과 의료 핵심 분야 관련 참가사 및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실무진이 전시회에 참가해 즉각적인 B2B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매년 전시 출을 확대하여 그 규모가 한층 커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 양측이 합의된 '더마 코리아 Derma Korea'에 국내외 관계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한국의 주요 전시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방증이라는 것이 주최 측 IBITA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후 진행 될 더마 코리아 Derma Korea' 행사는 약 3,0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들이 사전 등록 할 것으로 예상했고, 150여개사의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 업체와 바이어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한국에서의 주요 국제 행사로 도약할 것을 기대했다.

주최사인 인덱스 홀딩 회장과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이사장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될 더마 코리아는 세계적인 피부미용 Dermatology 와 관련한 비즈니스 종사자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산업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해 줄 것이다" 고 말했다.

행사 가운데 별도로 컨퍼런스에는 피부미용에 대한 가장 최근의 관심사를 다루며 일방적으로 듣는 세미나가 아닌 각국의 연사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수준 높은 토론도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더마 코리아 어워드도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진행하기로 해 벌써부터 피부 에스테틱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가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2016'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와 Reed Exhibitions 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시상식 거행 전격적 합의

- 한국 화장품 원료, 부자재 수상기업의 전 세계 대대적 홍보 마케팅 기대 -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18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글로벌 전시 주최사인 Reed Exhibitions 사를 직접 방문하여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인 'in-cosmetics Asia' / 'in-cosmetic Korea'의 한국파트너로서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를 전격 재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시상식은, 다가오는 7월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n-cosmetics Korea 2016' 박람회와 함께 각종 화장품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와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가장 우측 Reed Exhibitions 본부 이사 Darren Johnson, 우측으로부터 세 번째 Reed Exhibitions 인코스메틱스 그룹 이사 Lucy, 우측으로부터 두 번째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는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한국IBITA단체관)에 이어 북미 코스모프로프 (향후 3년 연속 유망박람회 선정, 정부지원 한국국가관 수행기관으로 선정), 홍콩 코스모프로프 (한국IBITA단체관) 등 세계 3대 화장품 미용 박람회에 매년 정부지원 한국국가관 또는 단체관을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 멕시코, 이란, 사우디, 중국 상해, 광저우, 북경,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등 30여개 뷰티관련 해외유망박람회를 선별하여 한국관/한국단체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박람회에 해외기업 유치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대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Reed Exhibitions 사는 연간 약 700여개 분야별로 유명 브랜드 종합 전문 박람회를 주최하는 해외박람회를 주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전시 주최사이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시상식의 개최 목적은 첫째,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적인 연구 기술 개발의 장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둘째, 세계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기술을 널리 알리고 수상한 기업 역시 그들의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상식이 거행되는 박람회장에서 화장품 기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통한 국제적인 관련 종사자들과의 교류의장을 열어 줌으로써 한국화장품 원료 및 부자재 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이노베이션 존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은, "이번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시상식은 한국뷰티산업계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일로, 세계적으로 공정한 심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뷰티 기업에상을 수여함으로서 본 시상식을 통해 한류 블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화장품 뷰티 산업계에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화장품 뷰티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인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6년도 터키 뷰티 유라시아 박람회 한국관 전경

또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n-cosmetics Korea 2016' 박람회의 참관객 운영을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 총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협회로 사전 참관 등록 기업 및 임직원에게 지역별 (인천, 충북, 경기 등)로 버스(45인승)를 배치하여 코엑스 전시장까지 운행토록 하는 참관객을 위한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착순 사전등록 한정으로 화장품 제조사 (Cosmetics Manufacturers)를 비롯한 OEM/ODM 기업 및 화장품 뷰티 산업 관계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시 버스 승차부터 전시회 무료입장권, 전시 컨퍼런스 무료 참가권 등의 Free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in-cosmetics Korea 2016'에서는 ▶ 세계적인 관련 연사자들과 10여개 화장품 원료 회사의 기술, 제품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 세계적인 원료회사 제품의 전시 및 1:1 바이어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질 예정이며 국내외 우수한 화장품 원료, 부자재 기업 약 400여개사의 참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동 박람회 참관 및 시상식 (in-cosmetics Korea Award 2016)의 사전등록 및 신청 등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해외전시사업팀 Tel: 02-861-8087, Email:ibita@ibi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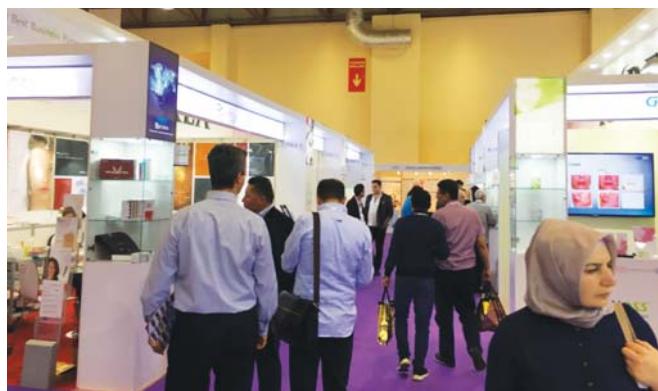


## IBITA Top News

# IBITA, 터키 시장에 한국 중소기업 진출 발판 마련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터키 뷰티유라시아' KOTRA 공동수행 3년 연속 정부지원 한국관 구성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2016 터키 뷰티 유라시아 (Beauty Eurasia 2016)에 KOTRA와 공동수행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정부지원 한국관을 구성한 동 전시회는, 터키 최대규모의 뷰티 전문 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13개 국가관이 구성된다는 특징이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 참관이 이루어져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터키 뷰티 유라시아' 전시회의 매력이기도 하다.

2014년 최초로 정부지원 한국관이 구성된 이래, 매년 그 규모를 확장하여 참가 3년 째인 올해에는 총 20개사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여 성황리에 박람회 참가를 마쳤다.



소득수준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은, 잠재력이 높은 터키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터키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젊고 매력적인 용모를 추구하는 인구가 늘고 있고, 특히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데 힘입어 터키 화장품 및 개인 관리용품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수년 전 13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가 현재 32달러 선으로 늘었다. 하지만 터키 여성 중 화장품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3~4%에 불과해 유럽 시장의 47%에 크게 못 미친다. 아직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터키 화장품 시장 중 헤어케어 부문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약 20% 차지, 스킨케어는 약 15%를 차지하며 부문별 1위, 2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구강케어, 향수, 색조화장품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아직은 한국산 화장품이 많이 진출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뷰티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시장을 먼저 진출하는 자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터키 화장

품 시장은 경제동향에 맞춰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되는 도시화와 전문적 인력의 증가가 터키 화장품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한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은 터키 윗슨 현지 법인과 함께 K 뷰티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키로 힘에 따라, 한국 화장품 시범구매상품을 선정하여 올해 10월 K-뷰티 시연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터키 현지 소비자에게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류 드라마가 터키 전역에 인기 드라마로 방영됨에 따라 미용에 관심이 많은 한류 팬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해마다 터키 뷰티 유라시아 한국관을 찾는 참관객, 바이어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꾸준히 터키 뷰티 유라시아 전시회의 한국관 유치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터키 현지인들의 한국화장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떠오르는 시장, 멕시코를 주목하라

###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멕시코 뷰티 엑스포 KOTRA 공동수행 운영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멕시코 최대 뷰티 박람회인 멕시코 뷰티 엑스포를 2년 연속 KOTRA 공동수행으로 한국관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멕시코 시장의 특성은 경제활동 가능한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 활성화로 인해 화장품 수요 증대와 특히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서 여성의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뷰티 업계에서도 멕시코가 남미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멕시코 화장품 시장 성장에 비해 아직 한국 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므로 떠오르는 시장, 멕시코 뷰티 시장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한 때이다.

멕시코 뷰티 시장에는 현재 다양한 해외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으며 약 80% 이상의 제품들이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멕시코 현지 특성상 강렬한 핫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미, 주근깨, 잡티를 가지고자 하여, 스킨케어 시장이 완만한 조짐을 보이고 2019년에는 약 17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천연 원료를 바탕한 뷰티제품, 안티에이징 제품, 메이크업 제품 등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를 가꾸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제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멕시코 뷰티 엑스포 한국관(정부지원) KOTRA 공동수행으로 12개사 참가하였으며, 협회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멕시코 현지인들의 관심이 많은 뿐더러 우리 한국화장품의 좋은 품질력과 가격경쟁력을 알아봐주는 유통상이 많았다고 전했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을 위해 우리 협회는 올해 2016년에도 멕시코 뷰티 엑스포 단독에이전트로서, 올해 정부지원 연속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 년에는 20개사 이상 한국관 운영 계획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중동 피부미용의 메카로 부상한 '두바이 더마' KOREA-IBITA 단체관,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25개사 규모 한국단체관 주관 성료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2016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 박람회 (Dubai Derma 2016)에 25개사 규모의 한국단체관(KOREA-IBITA)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두 바이 더마 박람회는 중동 피부미용 학회이자 전문 박람회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MENA 지역 최대 규모 박람회로,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더마톨로지 전문 박람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에는 전시 규모가 예년 대비 참가사 수가 20% 이상 대폭 증가하여 전시 개최 흘리 총 3개의 홀로 확장되었고 해외 바이어 참관객 방문 또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참관객 수 방문을 기록했다고 전시 주최측 관계자는 말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2013년 국내 최초로 한국단체관을 주관한 이래 매년 규모를 확장하여 참가 4년째인 올 해 총 25개사로 구성된 역대 최대 한국단체관을 구성하였고 상담액 159,954천불, 현장 계약액 1,500천불의 역대 최대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내 참가기업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동 전시에서, 한국의 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기 및 기능성 미용제품에 대한 중동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중동에서의 미용 한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동 전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2016 두바이 더마 한국단체관 부스 전경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한 관계자는, 동 전시회를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꾸준한 전시회 참가와 한국단체관 규모 확장 및 지속적인 수출상담회 개최로 한국 뷰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동시장의 한국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떠오르는 중동시장, 1:1 중동 바이어 매칭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올 4월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과 2016 K-뷰티 중동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공동주관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 에미리트 볼룸에서 “2016 K-뷰티 중동시장 진출 수출 상담회 및 설명회”를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과 공동주관하여 진행했다.



K-뷰티 중동시장 진출 수출 상담회 및 설명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유익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바이어 매칭 오전 상담회와 오후 상담회를 이어갔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은 “중동 지역이야말로 떠오르는 뷰티 신흥시장이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동 뷰티 시장 진출확대에 한 발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이광일 부관장의 중동 뷰티시장 규제현황, 두바이 경제개발부 아시프의 뷰티제품 수출입 방안, 중동 지역의 인터넷 플랫폼 Souq 소남의 인터넷 쇼핑몰 진출방안 등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했다.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의 사전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동지역 5개국의 총 화장품 시장규모는 83.2억불에 달하며 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2.4%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시장규모가 크며 그 뒤로 UAE,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순이고, 중동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 평균 5%대의 성장을 보이며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어 중동지역에 뷰티시장 진출의 관심을 가질 때라고 하였다. 한편 급성장 시장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미미하며 규제 절차가 까다로우며, 할랄인증을 사전등록요건으로 강제하는 수입국은 없으나 기업의 마케팅 수단 혹은 규제국의 권고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6년도 2016 K-뷰티 중동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전경

수출상담회의 장은 참가열기가 뜨거웠다. 불특정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참가와 다르게, 사전 수요조사 및 매칭으로 상담 성과가 극대화되었다.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측에서 두바이 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바이어를 엄선하고 협회에서는 참가사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미리 카탈로그와 제품 정보를 배포하여 참가사와 바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협력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상담회에서 해외바이어와 총 50건 175만8천달러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 지역은 현지제조업체 미약으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직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는 미미하지만, 분명 승산 있는 시장이다. 앞으로 수출상담회와 두바이더마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중동시장 진출 확대를 응원하며 협회에서도 계속 수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1:1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과 같은 수출 상담회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할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기업들에게 중동시장의 수출 기회를 도울 계획이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화장품 월 평균 30만원 이상 구매

- 중동 5개국 중, 화장품 시장규모 1위(62.4%)인 사우디아라비아 -



■ ‘사우디’ 화장품시장 성장잠재력 大, 한화 약 19조7,000억원으로, 매년 11% 성장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규모는 600억리얄(한화 약 19조7,000억원 해당)으로 매년 11% 성장하고 있다. 2015년 전체 시장규모는 52억1,000만 달러로 중동 전체 시장의 19.2%를 차지하여, 중동 전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 여성들이 연간 화장품 소비 금액은 약 3,800달러(한화 약 400만원 해당)로이며, 월 평균 한화 30만원 이상 소비, 직장여성들의 경우 급여의 70%~80% 이상을 화장품에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 ■ 앞으로의 수요 동향?

‘색조’ 매년 10%이상 성장, 특히 눈 화장 제품 수요 커  
사우디의 색조화장품 시장규모는 2015년 말을 기준 약 5억 달리이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슬람교 중심국가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색조화장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생활방식의 서구화, 도시화의 진전, 방송매체 및 SNS의 영향, 유아 및 청년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색조화장품의 소비가 점차 일반화돼 가고 있다고 한다. 색조화장품 중 가장 급격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눈화장 부문이며, 사우디 여성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눈을 제외한 부분은 검은 천으로 가려야 한다. 따라서 유일하게 노출이 허용되는 눈화장 용품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아이라인과 음영처리를 위한 화장펜과 색조화장의 수요가 많으며, 기타 페이스 색조화장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위성채널의 시청은 외국에서 개발되는 신규 화장품 정보를 신속하게 사우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색조화장품의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 ■ 사우디 여성들까지 화장품 한류, ‘기초화장품’ 중심으로 크게 인기

최근 사우디를 비롯한 UAE 등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류 영향에 따라 화장품과 액세서리 식품 등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미 기초화장품 분야에서는 상당한 매출을 보이는 단계이다. 기초화장품에서 얻은 좋은 평가를 색조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함.

## ■ 사우디 인증 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을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할랄 화장품은 이슬람 교리상 섭취가 금지된 돼지, 개 축출물이나 알콜등이 함유되지 않은 스킨케어, 색조등 모든 제품을 말한다. 비할랄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은 이를 중요시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할랄화장품 시장 전망과 가능성, 2020]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할랄 화장품 시장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인증제도도 마찬가지인 듯이,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리서치디렉터에 따르면 향후 할랄 화장품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사우디는 부유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동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은 물론이며, 할랄 제품의 출시와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 사우디 시장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사우디 시장은 아직 한국기업의 제품이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기호와 특성을 잘 파악해 현지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선행해야되며,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홍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는 국내 뷰티산업기업분들의 사우디 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6년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에 한국관(정부지원)을 구성하여 15개사 내외로 모집중에 있다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 국내외 시장정보

## 한국 최대 수출시장 '중국'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중국 중화인민국 정부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중국(베이징)국제건강산업박람회' (4월) 한국단체관 주관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회장 윤주택)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20회 중국(베이징)국제건강산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2016)」에 47개사 부스규모의 한국단체관을 성공리에 주관하였다.

올해 20회 째 개최된 중국(베이징)국제건강산업박람회는 중국 최대 종합 박람회로 올해 35,000sqm(7개관), 900개사가 참가하는 등 박람회 규모가 매년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의 헬스, 뷰티, 생활소비재 등의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해외참관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한국화장품 수출액 4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최대 수출시장이며 최근 '태양의 후예' 드라마 등을 통한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뷰티제품의 전망은 매우 밝다.

협회 주관 한국단체관 참가업체 중 한 화장품기업은 현지 중국 바이어와 한화 약 2억 원 상당하는 금액을 현장 계약 체결하는 등의 높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뷰티제품 최대수출시장인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건강산업박람회와 같은 유망한 중국 박람회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판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 2016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재)강원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 체결

- 해외전시회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주관 진행 -

2016년 7월 25일 (재)강원테크노파크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하 IBITA)는 해외 전시회의 성공적인 한국관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강원테크노파크 이철수 원장과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의 협약체결 및 감사패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강원테크노파크 윤완태 팀장과 한국뷰티산업무역원 김은지 원장이 함께 참가해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해외 전시회에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가 한국 국가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식품(유기농, 건기식 등), 에스테틱, 의료, 생활 소비재 및 화장품 뷰티 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유관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한국관 구성을 위한 대상 전시회로는 2017년 4월에 있을 중국국제건강산업박람회를 포함하여 강원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여러 해외 박람회에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가 주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앞으로 상기 전시회 내 한국관의 주관기관으로서 업체 유치 및 한국관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한국관 활성화를 위한 업체 유치 및 지원, 전시회 참가를 위한 지원금 확보, 전시회 공동 홍보를 비롯한 기타 전시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며, 상호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진행 의료뷰티화장품 산업 및 건강산업체 지원에 상당한 지원 물꼬를 트우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중소.벤처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 뷰티 산업의 무역 촉진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에 감사패를 증여하였다.

## 유관기관 소식

### 경제불황에도 성장하는 남성 뷰티제품 시장 '브라질'

- 브라질 남성, 차별화된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남성 뷰티 제품 판매 2017년 세계 1위 전망 -

브라질은 2014년 기준 163억 3800만불 규모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화장품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 ■ 남성뷰티제품 최근 5년간 2배 성장

브라질 대부분의 미용업체가 경기불황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브라질 남성 미용제품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남성 미용제품 시장은 최근 5년간 규모가 두 배로 성장했으며, 2019년까지 7.1% 성장하여 연매출액은 67억 달러 달성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와 중국시장을 넘어 세계 1위에 랭크될 전망이다.

#### ■ 샤워, 헤어, 면도제품 인기, 브라질 남성, 차별화 외모관리 큰 관심

유럽 통계조사기구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브라질에서 높은 판매 증기를 보인 남성 미용제품 품목은 샤워제품(+175%증가), 헤어제품(+137%증가), 면도제품(+120%증가)으로 나타났다.

유로모니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남성 뷰티제품의 판매 증가는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과거의 편견이 깨지며 남성들이 외모에 투자하고 있는 사회적 열풍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4위 화장품 시장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뷰티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남성 뷰티제품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향후 5년 브라질이 남성뷰티시장 세계 1위 달성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남성뷰티제품 시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KOTRA 인도네시아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잠재력 무한'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경기둔화 속에서도 매년 15% 성장, 수입화장품 화장품 소비의 60%차지 -

인도네시아 화장품시장은 인도네시아의 고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최근 매년 약 1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2013년 시장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 ■ 인도네시아소비자, 외국뷰티제품브랜드 선호, 수입량 확대 추세

인도네시아는 연간 화장품 소비규모는 약 15조 루피야(한화: 약 1.5조원해당)이며, 이 중 60%정도가 수입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화장품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감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기준 일본제품 수입량은 38%, 중국은 31.5%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미국, 유럽 지역의 수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 ■ 한국뷰티제품 수입 꾸준히 상승, 인도네시아 수입시장규모와 잠재력 비해 시장 진출률 낮아

kotra 글로벌원도우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수입현황으로는 2012년 250만 달러, 2013년 350만달러, 2014년 430만달러로 양적 질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시장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률이 낮은 편이다.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수입화장품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률이 낮은 이유는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Makanan)인증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뷰티기업의 원활한 화장품 수출 진행을 위해 화장품 사전신고 절차 단축 등 수출 애로사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했다.

협회는 인도네시아 최고,최대 미용박람회 「2016년 인도네시아 뷰티&메디케어」에 참가 희망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 하고 있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2017년 32개 해외유망 박람회 한국관 및 IBITA관도 모집안내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뷰티관련 유력 해외바이어 초청 2016 코리아 소싱 비즈니스 매칭 페어 성황리에 마쳐 2017년 32개 해외유망 박람회 한국관 및 IBITA관도 모집안내

- 총 해외 유망바이어 20개국 85개사 초청 실질적인 성과 거둬 -



2016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막식(좌에서 두번째 IBITA 윤주택 이사장)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10월 20일~21일 양일간 코엑스 3층 E홀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9개 중소기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6 해외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주관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업종별 단체에서 추천한 유력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1:1 상담을 주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는 20개국 85개사의 해외 유망 바이어들이 450여 국내 섬유·패션, 뷰티·미용을 비롯한 주요 소비재 업종과 전기·기계, 상하수도 기자재 중소기업들과 1,700여건의 상담을 진행, 약 2억 4,000만 달러 이상의 상담실적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제공

과 약 30만 달러 이상의 현장계약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번 상담회는 총 4개의 섹터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뷰티·미용 섹션(C)를 주관하여 15명의 바이어(중국, 홍콩, 대만,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폴)를 초청하여 102개 사가 넘는 국내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해, 250건이 넘는 상담을 이루어 냈다고 전했다.

뷰티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회 등에서 만난 바이어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바이어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해외 출장보다 비용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에서는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으며, IBITA에서 주관·주최하고 있는 정부지원 전시회들을 소개하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전시회 참가를 통해 더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에서는 KOREA-IBITA관으로 2017년 춘계 중국 광zhou 미용박람회, 이태리 코스모프로포, 두바이 더마, 태국 아세안뷰티, 터키 이스탄불 뷰티박람회, 하계 상하이 국제미용박람회,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포, 브라질 뷰티 페어등 32개 해외유망박람회 참가사를 모집중에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해외전시팀 02-861-8084~7\)](#)로 문의하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주관진행

## 2017년도 해외유망박람회

### 2017년도 상/하반기 해외유망박람회

연번	전시회명	개최기간	진행상황	품목
1	2017 춘계 중국 광저우 미용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Spring) 2017	2017. 3.9 ~ 3.11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	뷰티종합
2	2017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7	2017. 3.17. ~ 3.20	KOREA-IBITA관 50개사 모집	뷰티종합
3	2017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Dubai Derma 2017	2017. 3.27 ~ 3.29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	뷰티종합
4	2017 중국 베이징 건강산업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2017	2017. 4.17 ~ 4.19	한국관 100개사 모집	종합
5	2017 터키 이스탄불 뷰티박람회 Beauty Eurasia 2017	2017. 4.27 ~ 4.29	KOREA-IBITA관 25개사 모집 '2014~2016 정부지원, KOTRA 공동수행'	뷰티종합
6	2017 이란 뷰티 & 클린 박람회 Iran Beauty & Clean 2017	2017. 4월 중순 경	KOREA-IBITA관 25개사 모집	뷰티종합
7	2017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ASEAN Beauty 2017	2016. 4.27 ~ 4.29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	뷰티종합
8	2017 뉴욕 코스모팩 Cosmopack in New York 2017	2017. 5월 중	참가사 모집	화장품 용기, 메이크업, 네일
9	2017 하계 중국 상하이 국제 미용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Summer) 2017	2017. 5.16 ~ 5.18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	뷰티종합
10	2017 두바이 뷰티월드 Beauty World Middle East 2017	2017. 5.14 ~ 5.16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원료, 패키징, OED / ODM
11	2017년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7	2017. 7.9 ~ 7.11	한국관 50개사 모집 '2017~2019 정부지원 IBITA 단독확정'	뷰티종합
12	2015년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lia 2017	2017. 8월 중	KOREA-IBITA관 2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13	2017년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Autumn) 2017	2017. 9월 중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14	2017년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Beauty Fair 2017	2017. 9월 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5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15	2017 중국 난징 성형 & 에스테틱 전문 박람회 CIPAE 2017	2017. 9월 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중	피부미용, 성형, 에스테틱기기
16	2017 상하이 아시아 뷰티 엑스포 Asia Beauty Expo 2017	2017. 9월 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17	2017 나이지리아 뷰티아프리카 Beauty Africa 2017	2017. 10월 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	뷰티종합
18	2017 중국 북경 추계 미용 박람회 International Beauty & Cosmeticsc Expo in Beijing 2017	2017. 10월 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	뷰티종합
19	2017 멕시코 뷰티 엑스포 Expo Beauty Show 2017	2017. 10.29 ~ 31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2015~2016 KOTRA 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20	2017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 interCHARM 2017	2017. 10.25 ~ 28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	뷰티종합
21	2017 중국 청두 프리미엄 생활 소비재전(뷰티관) Stylish Life China 2017	2017. 11월 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6년 KOTRA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22	2017년 태국 방콕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smetics Asia 2017	2017. 11월 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3~2016년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화장품 원료, 용기
23	2017년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2017	2017. 11월 중	KOREA-IBITA관 50개사 모집중 '2016 KOTRA 지원 공동수행'	뷰티종합
24	2017 인도네시아 뷰티 & 메디케어 Indobeauty & Indomedicare 2017	2017. 11월 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6 KOTRA 지원 단독수행'	뷰티종합, 메디컬
25	2017년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2017	2017. 11월 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중 '2015 ~ 2016 KOTRA 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26	2017년 미국 라스베가스 A4M 안티에이징 전문 박람회 Las Vegas A4M Show 2017	2017. 12월 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	피부미용기기 및 화장품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T. (82) 2-861-8084 ~ 7 F. (82) 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www.ibita.or.kr